

## 졸업 10년 후 ‘괜찮은 일자리’를 가지려면

- 졸업 이후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‘괜찮은 일자리(decent jobs)’로 이행하는 청년들의 경우, 진입시점에 선택한 일자리가 모두 전공과 일치되는 일자리, 가능하면 대학에서 배운 전공지식이 도움이 되는 일자리를 선택한 결과였음.
- 진입시점에 선택한 일자리가 중소기업인지, 대기업 및 공공기관인지 또는 정규직인지 비정규직인지 등 그 일자리 유형보다 전공과의 일치여부가 향후 10년 후 ‘괜찮은 일자리’로의 이행을 결정하였다는 것임.
- 따라서 졸업 이후 노동시장에 안착하는 시점에 ‘괜찮은 일자리’를 가지려면 졸업시점, 즉 노동시장에 진입하려는 시점에서 그 일자리가 가진 외형적 조건보다는 전공과 일치되면서 대학에서 배운 전공지식이 도움이 되는 일자리인지 판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함을 시사

### 주 |

이 글은 ‘황성수(2018), “교육-노동 시장 이행과정에서의 선택이 10년 후 노동시장 안착에 미치는 영향 탐색”, 『2018 대졸자직업이동경로 조사(GOMS) 심층연구』, 한국고용정보원, p. 14~52의 일부를 발췌, 재정리하여 작성함.

### 각주 |

1) 1차조사와 3차조사는 가중치를 적용하여 전체를 조망 가능하지만, 표본 수가 적은 2015년의 추적 조사는 가중치를 활용한 전체 조망이 불가능함. 다만, 2015년 추적조사의 결과값이 1차조사의 원표본을 대리할 수 있을 정도로 각각의 쿼터를 유지하여 조사되었음.

## 01 분석의 필요성 및 분석 자료

청년층 실업난, 중소기업 기피와 같은 노동시장 문제에 대한 원인 탐구를 위해 노동 시장 진입시점에서의 선택이 10년 후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이행경로별로 분석할 필요가 있음.

- 과거와 달리 대기업의 일자리는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에 진입을 앞둔 청년층은 대기업 및 공공기관 취업을 위한 취업재수를 할망정, 중소기업에 취업을 꺼리고 있다는 것이 현실임.
  - 또한 다수의 청년들은 전공과 적성에 맞는 중소기업에 대한 선택보다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정규직이라는 노동시장에서 외형적 ‘좋은 일자리(good jobs)’로의 이행만을 기대
- 본 연구에서는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시점에서 ‘중소기업 정규직 또는 공공기관 및 대기업의 비정규직으로의 이행’을 한 청년층과 ‘대기업 및 공공기관의 정규직으로 이행’을 한 청년층과의 비교를 통해 진입시점에서의 바람직한 선택은 무엇이었을까 고민함.

분석자료: 한국고용정보원 ‘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(Graudates Occupational Mobility Survey : GOMS)’

- 분석 자료: 한국고용정보원의 2005GOMS 1차(2006)년도 조사, 3차(2008)년도 조사, 및 2015년 추적조사
- 분석 대상: 모집단이 2005년 졸업생인 2005GOMS 1차조사 26,544명 → 3차조사 22,134명 → 2015년 추적조사 1,824명<sup>1)</sup>



02 이행경로 분류

진입시점과 정착시점에서 고용형태에 따라 각각 4가지 경로로 분류하고, 안착시점에서 2가지 경로로 분류하여 총 32개의 경력경로(career path)를 부여함.

- 분석 자료의 1차(2006), 3차(2008)조사의 기업유형, 규모, 고용형태 문항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4가지 경로로 구분함. 이때 주관적 만족도는 배제
  - 2006년(진입시점=t기): ① 대기업 및 공공기관의 정규직 근로자, ② 대기업 및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근로자, ③ 중소기업 정규직 근로자, ④ 나머지(비임금근로자 및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, 파트타임 근로자 등)
  - 2008년(정착시점=t+1기): ① 대기업 및 공공기관의 정규직 근로자, ② 대기업 및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근로자, ③ 중소기업 정규직 근로자, ④ 나머지(비임금근로자 및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, 파트타임 근로자 등)
- 2015년 추적조사에서는 기업유형과 같은 문항이 제외됨에 따라 활용 가능한 대리변수로 '경제적 보상'은 '임금과 소득의 만족도'로, '사회적 위세'는 '이직의도'로, '주관적 만족도'는 소득 및 임금을 제외한 일자리에 대한 만족도로 구성하여 다음과 같이 2가지 경로로 단순화함.
  - 2015년(안착시점=t+2기): ① 괜찮은 일자리(decent jobs), ② 그렇지 않은 일자리(not decent jobs)
  - '괜찮은 일자리(decent jobs)'의 정의: 하는 일과 근로조건 모두 만족하면서, 하고 있는 직무의 수준이 교육수준과 일치하면서 동시에 전공과도 일치하고, 이직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

〈표 1〉 경력경로별 분류

	t기[[2006]	t+1기[[2008]	t+2기[[2015]	N(사례수)
Type1	1 (대기업 및 공공기관 정규직)	1	p1(주관적) (decent jobs)	80
Type2		2		-
Type3		3		11
Type4		4		148
Type5	2 (대기업 및 공공기관 비정규직)	1		8
Type6		2		10
Type7		3		4
Type8		4		17
Type9	3 (중소기업 정규직)	1		8
Type10		2		2
Type11		3		86
Type12		4		27
Type13	4 (중소기업 비정규직 등)	1		11
Type14		2		3
Type15		3		8
Type16		4		25
Type17	1 (대기업 및 공공기관 정규직)	1	p2(주관적) (not decent jobs)	53
Type18		2		4
Type19		3		14
Type20		4		133
Type21	2 (대기업 및 공공기관 비정규직)	1		8
Type22		2		15
Type23		3		5
Type24		4		20
Type25	3 (중소기업 정규직)	1		15
Type26		2		3
Type27		3		109
Type28		4		47
Type29	4 (중소기업 비정규직 등)	1		-
Type30		2		7
Type31		3		22
Type32		4		44
전체				947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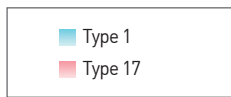
주 | 사례수가 30 미만이면 SSB (small sample bias)를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는 분석에서 제외

03 이행경로별 비교 분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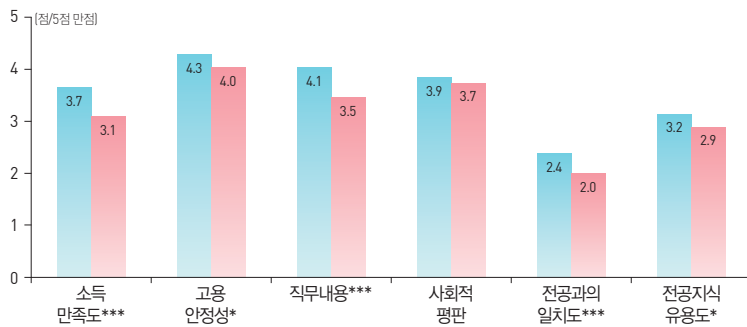
↓ 졸업시점, 즉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시점에서 어떤 일자리로의 선택이 주어진다면 향후 ‘괜찮은 일자리’로의 이행을 준비하기 위하여서는 전공과 일치되는 직무여야 하며, 대학에서 배운 전공지식이 도움이 되는 곳으로의 선택이 나올 수 있음.

- <표 1>의 Type1과 Type17의 두 그룹 모두 진입시점(2006년)과 정착시점(2008년)에서 고용형태가 ‘대기업 및 공공기관의 정규직’의 일자리로 외형상 ‘좋은 일자리’로 보였으나, 안착시점(2015년)에서 ‘괜찮은 일자리’와 ‘그렇지 못한 일자리’로 나누어진 것임.

– 사회적 평판을 제외한 소득만족도, 고용 안정성, 직무내용, 전공과의 일치도, 전공지식 유용도 등 모두가 노동시장 진입시점에서부터 차이가 존재함. 즉 진입시점에서의 두 집단 간 유의적인 차이가 졸업 10년 후 ‘괜찮은 일자리’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기재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의미



↓ 주 ↓  
 \*\*\* p<0.01, \*\* p<0.05 \* p<0.1 유의수준에서 평균 차이가 유의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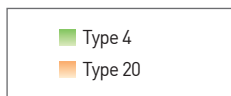


[그림 1] 진입시점(2006년) Type1:Type17 만족도 비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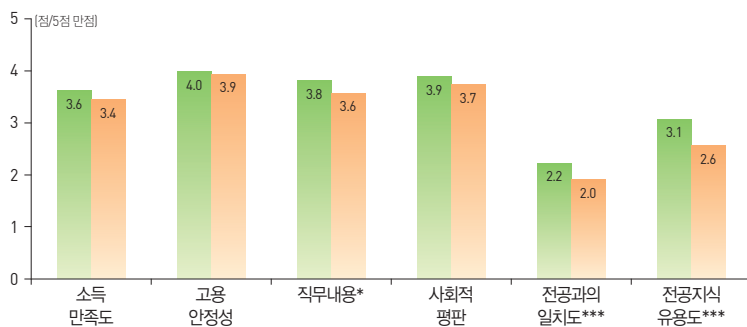
- <표 1>의 Type4와 Type20은 진입시점(2006년)에서 고용형태는 ‘대기업 및 공공기관의 정규직’의 ‘좋은 일자리’였으나 정착시점(2008년)에서는 ‘중소기업 비정규직 등’으로 외형적 일자리가 악화되었다가 안착시점(2015년)에 ‘괜찮은 일자리’를 갖거나 ‘그렇지 못한 일자리’로 이행한 두 그룹을 비교한 것으로, 소득 만족도나 고용 안정성, 사회적 평판은 두 그룹 간 차이가 없었음.

– 직무내용, 전공과의 일치도, 전공지식 유용도는 두 그룹 간의 차이가 유의하였음.

– 특히 전공과의 일치도와 전공지식의 유용성은 두 그룹간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남. 이는 안착시점(2015년)에서의 일자리가 ‘괜찮은 일자리’인지는 노동시장의 진입시점에서 전공과의 일치된 직장을 가졌는지가 중요한 구분변수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임.



↓ 주 ↓  
 \*\*\* p<0.01, \*\* p<0.05 \* p<0.1 유의수준에서 평균 차이가 유의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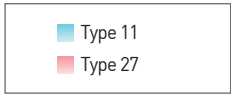


[그림 2] 진입시점(2006년) Type4:Type20 만족도 비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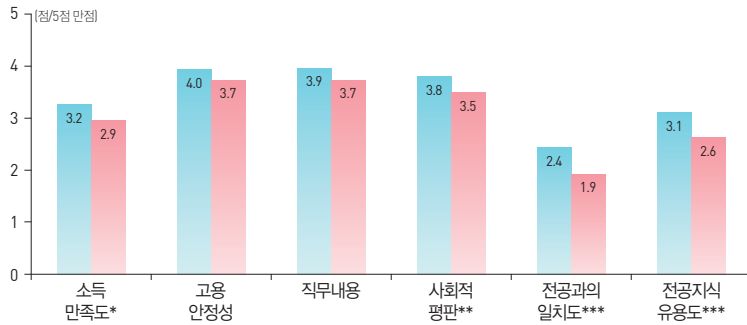
- <표 1>의 Type11과 Type27은 진입시점(2006년)과 정착시점(2008년) 모두에서 고용형태가 ‘중소기업 정규직’ 일자리를 유지하다 안착시점(2015년)에 ‘괜찮은 일자리’와 ‘그렇지 못한 일자리’로 나누어짐. 이 두 그룹간의 유의적인 차이가 없을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실제 질적인 만족도는 진입시점에서부터 차이가 극명하였음.

– 이는 기존의 구분자로 활용되고 있는 기업규모, 기업특성, 고용계약 기간 등의 고용형태로써 ‘괜찮은 일자리’를 판별하기 매우 어려움을 의미함.

- 또한 300인 미만의 종사자 수에 국한되어 정의해온 중소기업 규모라 하더라도 기업의 특성 및 장단점이 천차만별인 중소기업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고려한다면, 종사자 수라는 하나의 기준만으로 '좋은 일자리' 여부를 가능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음.
- 여기서도 진입시점에서의 전공과의 일치도와 전공지식의 유용성에 대한 두 그룹의 차이가 유의한 결과로 볼 때, 오히려 전공과의 일치여부가 안착시점에서 '괜찮은 일자리'를 가지게 하는 주된 기제가 아닐지 생각하게 됨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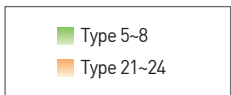
주 |  
 \*\*\* p<0.01, \*\* p<0.05 \*  
 p<0.1 유의수준에서 평균 차이가 유의함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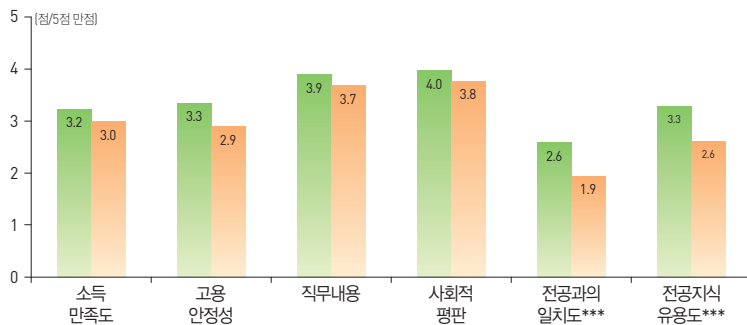
[그림 3] 진입시점(2006년) Type11:Type27 만족도 비교

- 노동시장의 진입시점(2006년)에서 대기업 및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으로 이행하였던 집단 중, 안착시점(2015년)에서 '괜찮은 일자리'로 이행한 그룹(Type5~8)과 '그렇지 못한 일자리'로 이행한 그룹(Type21~24)간의 비교를 통해, 어떤 특성이 더해질 때 비정규직으로의 진입이 '괜찮은 일자리로 가는' 경력경로를 갖는지 파악해 보고자 함.

- 묶어 놓고 보니 안착시점(2015년)에 '괜찮은 일자리'로 이행의 원인은 어쩌면 비정규직 일자리를 선택하더라도 대학에서 배운 전공과 일치하고 전공지식이 유용하게 쓰이는 곳을 선택하였을 경우, 졸업 이후 10년이 지나 노동시장에 안착한 시점에 '괜찮은 일자리'로의 이행이 가능할 수 있음을 보여줌.
- 이는 앞서 경력경로별 비교한 결과와도 일치하는 내용으로, 노동시장 진입시점에서 선택한 일자리 유형과 관계없이 전공과의 일치도와 전공지식의 유용도가 향후 '괜찮은 일자리'로 이행하는 데 있어 주된 기제 또는 선별변수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함.



주 |  
 \*\*\* p<0.01, \*\* p<0.05 \*  
 p<0.1 유의수준에서 평균 차이가 유의함.



[그림 4] 진입시점(2006년) Type5~8:Type21~24 만족도 비교

#### 04 시사점

- 분석결과, 졸업 이후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'괜찮은 일자리'로 이행하는 청년들의 경우, 진입시점에 선택한 일자리가 그 유형과 관계없이 모두 전공과 일치되는 일자리, 가능하다면 대학에서 배운 전공지식이 도움이 되는 일자리를 선택하였음을 확인함.
- 결국 향후에 '괜찮은 일자리'로의 이행에 도움이 될 수 있으려면 그 일자리의 규모나 고용형태 보다도 더욱 중요한 것은 해당 '일자리의 전공일치성' 과 '대학에서 배운 전공지식의 활용도'였음을 발견

황 성 수 (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)